

여성잡지를 통해본 이상적인 여성미 연구

- 80년대, 90년대 기사를 중심으로 -

이 관 이*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Female's Ideal Beauty Based on Magazine Articles - Focusing on the 80's and the 90's -

Kwan-Yi Lee* · K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2. 9. 4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fully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female's ideal beauty through time based on word analysis. Word selection was made from the very exemplary Women's magazines: Yuhwon, Jubu-Saengwhal, and Yuhsung-Dongah. Further, in order to research the understanding of female's ideal beauty, a random research was done on 445 women, ranging from the ages 20's through 60's. From the result, a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further analyze the meaning of ideal beauty to each sector of the age groups for different time periods: the 1980's and the 1990's. To the 20's, beauty awareness was defined by the word "intelligence", however, the 1980's endorsed confidence with composure and calmness; where as the 1990's preferred beauty to be defined by "refinement and goal oriented." The 30's selected "individuality" marked with confidence in character, but there was a shift from "mature intelligence" in the 1980's to "professionalism" in the 1990's. The 40's chose mediocrity and commonness, however, likewise, a sense of "earnestness" for life and family was looked upon as beautiful. For the 50's, comfort with a reserved tenure was frequently noted and for the 60's, women chose "health and independence" as describing ideal beauty.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are justifiable because the articles are in a neutral perspective and are from the representative women's magazines. This research proved that the younger the age group, the more exterior beauty was considered, as opposed to the older generation who found inner beauty to be of most importance.

Key words: the ideal beauty(이상적인 미), individuality(개성적), intelligence(지성적),
earnestness(열성), composure(여유), health(건강함)

I. 서론

美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므로, 시대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인간의 이상이 변함에 따라서 美的 관념도 변화되어 왔다¹⁾. 아름다움이나 매력과 같은 심미적인 것의 기준은 문화적 맥락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인간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아름다움의 기준을 자신을 평가하는데 이용한다. 아름다운 외모는 남성에게는 필수적인 요인이라 하겠지만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여성하면 떠오르는 생각중의 하나가 美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은 아름다운 성으로 인식된다²⁾. 외모가 여성의 자기정체성이나 개체성과 동일시되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마치 여성의 의무처럼 되어버린 것이다³⁾. 신체를 아름답고 젊게 보이기 위한 현대인들의 관심과 노력은 신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만큼 진지하며, 완벽한 몸매를 가지는 것은 사회에서의 성공과 그에 따른 행복의 필수조건이 된다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서, 신체는 생존하고 노동하는 도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며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⁴⁾. 여성들은 자신의 매력이 내면에서 우러나는 개성이나 품격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외양적 치장에 의해 발휘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있다⁵⁾.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미의 가치는 외면의 미와 내면의 미의 조화 속에 있으므로, 단순히 시각적으로 표현된 외면의 미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미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한 총체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여 온 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해서 여성미의 변천을 규명하는 것은 현대 여성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성잡지 중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잡지들을 선정하여 그곳에 기사화 된 성공한 여성 또는 존경받는 여성의 기사를 선정하여 이상적인 여성미를 표현한 형용사들을 추출하여 그 어휘를 시대별과 연령 집단별로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하고, 이러한 성

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상적인 여성미가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신체와 이상적인 미의 관계를 밝혀 내며, 또한 학계에서 이미지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의식 관련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쓰임에 있어 정확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의 개념

美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시도는 희랍의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나타났다. 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부터 시작되었고, 미에 대한 사본적 성찰은 플라톤(Platon)을 비롯한 고대 철학사상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7세기에 이르러서 데카르트(Descartes)를 거쳐 헤겔(Hegel)의 합리주의적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논리인 서구의 근대 이성철학 체계는 몸으로부터 이원화된 이성과 영원의 구원 체계를 토대로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⁶⁾.

美는 미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써 다루어지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들을 일반적으로 미적 특성, 미적 가치라 부른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 숭고한 것, 영웅적인 것, 비극적인 것 또는 추한 것 등이 속한다. 미학은 18세기 중엽 서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정신활동 능력에 따라 비판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인간 생활과 연유된 미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시대의 격조 높은 미적 정서와 세련된 심미안, 건전한 미적 취향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문화 창조에 큰 역할을 해왔다⁷⁾.

美는 경험적 고찰에 의한 구체적인 측면과 이성적 사고에 의한 추상적인 고찰로 대별되는데, 추상적 고찰인 정신적인 측면의 아름다움은 외형으로 보

여지는 현상 이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미적 가치로 취급하여 왔으며, 동양에서는 풍을 예술의 요소로 인정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풍과 美가 일치 할 때로 규정하였다⁸⁾.

이처럼 美의 가치는 의미상 정신적 가치와 감각적 가치의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는 주체에 따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⁹⁾. 또한 미의 인지 성향(性向)은 그것을 판단하고 수용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성향의 분류는 분석심리학자인 융(C. G. Jung, 1875-1961)이 그의 유형론에서 인간의 성격차원을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의 방향에 따라 내향성(introvert)과 외향성(extrovert)으로 분류한 것¹⁰⁾에 기초한 것이다. 이때 내적 미의 내부지향적인 미는 정신적·관념적인 측면을 중시한 것이고, 외적 미로 표현되는 외부지향적인 미는 외양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측면을 중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지향적인 미는 교양, 생각, 성격, 가치관 및 전문지식을 통하여 표출되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외부지향적인 미는 외모와 의복 연출 등에 의해 표현되는 신체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외형을 보는 순간 바로 지각되는 즉물적(即物的) 미로 설명할 수 있다.

유교적 윤리관에 따른 한국여성의 전통적 아름다움은 그 행동 규범에 있어 복종과 인내가 첫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며 남성과 여성은 행동에서 달라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¹¹⁾. 그러나 여성의 미의식은 가부장 제도의 균열, 사회의 구조적 변동, 서구문화의 수용, 대중문화의 확산, 교육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 정도, 남성·여성의 서열화 정도 등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역할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해 왔다.

현재 사회·문화적, 예술적 관점에서 신체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심리학이나 복식미학 분야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신체미에 관련된 연구로는 신체를 선천적, 후천적 개념으로 조명한 여성 신체미 고찰¹²⁾(13)(14), 시대정신과 예술사조에 의한 문화의 현상 속에서 여성의 미의식과 패션의 관계를 규명한 여성미의 미학적 고찰¹⁵⁾(16)(17), 신체 이미지, 자기이미지, 신체 만족

도와 의복행동을 연구한 심리학적 고찰¹⁸⁾(19)(20) 그리고 소비사회에서의 여성 신체를 남성의 지배와 억압의 문화로 해석한 여성학적 고찰²¹⁾(22)(23)(24) 등이 있다.

선행연구로는 이상적인 여성미의 연령대별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2년 6월에 진행한 어휘분석에 의한 연구²⁵⁾가 있다. 이 연구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상적인 여성미'에 대한 자유언어연상을 실시하여 형용사 어휘를 수집한 다음, 각 연령대별로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상호 유사성에 기초한 의미 관계를 분석하여 1, 2, 3단계로 범주화하고 추상화하여 대표 어휘를 선정하여, 각 연령대 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미의 어휘적 의미와 연령대별 차이를 밝혀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 각 연령대별 추구하는 여성미의 성향은 젊은 연령층에서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고, 중년층 이상의 연령 대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의식 성향과 이상적인 여성미는 변화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변화를 거듭하여 온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해 왔으므로 여성미의 변천을 규명하는 것은 현대 여성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1980년대의 시대상과 여성미

8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화로 소비지향적인 세속적 가치관이 중심을 이루었고, 인간의 의식은 전통사회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합리주의에 따른 평등주의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해체를 가져와서 외국의 것을 따르는 것이 현대적이라는 생각들을 가진 젊은 세대는 무조건 외국문화를 모방하였다. 미국의 젊은 화이트 컬러 그룹인 여피(yuppy)족이 새로운 패션 리더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수입과 시간을 개인의 만족에 열성적으로 투자하였고, 특히 여성 여피들은 내적 충족은 물론 외양의 완성을 위하여 에어로빅, 조깅 등의 운동으로 체형관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운동복 산업을 패션산업의 주변으로 끌어 들였다. 그리하여 능력 있어 보이는 강한 이미지가 여성의 심벌이 되었고, 과거

남성들만의 직종이었던 전문직에 도전하여 남자와
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 강한 여성이 새로운 이상
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되었다. 소비 문화와 대중매체
의 발전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슈퍼모델 등의 대중
스타들이 시대의 우상으로 등장하였고, 패션모델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었다. 섹시하고 건강한 이미
지의 글래머 모델들이 대 활약을 했으며, 페락주의
와 여성 육체의 상품화 경향으로 잘록한 허리, 풍만
한 가슴, 늘씬한 다리 등 관능적이고 섹시한 성적 매
력이 여성의 미를 대표하게 되었다.

패션계는 세계 유행에 견주어서 활발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부상
하면서 일본풍의 의상과 문화는 이색적인 분위기와
색채로 에스닉 패션의 선풍을 가져왔다. 또한 핑크
패션에 기초한 아방가르드 스타일과 성의 자유로운
표현에 의한 앤드로지너스 룩이 젊은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졌다. 자유로운 감성의 청년 문화가 70년대
에 이어 계속 대두되면서 자연스러운 소비환경이 형
성되어 영 패션에서 성인패션으로의 이행을 가져왔
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환경보호에 발 맞추
어 에콜로지룩과 혈렁한 스타일의 레이어드룩 등 활
동성이 강조된 캐주얼 패션이 인기를 끌었다. 패션
비즈니스 개념의 도입으로 대기업의 기성복산업 진
출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디자이너 브랜드와 수입 브
랜드 매장이 증가함에 따라 패션 인구도 점점 늘어
나게 되었다²⁶⁾.

3. 1990년대의 시대상과 여성미

90년대는 정치적 양극체제에서 경제적 다극체제
로 전환 양상을 보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로, 국제화 또는 세계화로 진행되며 21세기로 이행
하는 시기이었다. 고도로 산업화된 물질문명과 개인
주의로 치닫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인간과 자연, 기계와 문화,
물질과 정신에 대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
식의 틀이 마련되었다.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었
고 정보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며, 컴퓨터 세대들
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개인 중
심적이고 소비행동에서도 기성 세대와는 큰 차이를

갖는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산
업 공해에 따른 환경 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
고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한 과거와 미래, 동양
과 서양이 재구성되어 세련된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여성들의 지위가 더욱 향상되고,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상승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급속히 변하게 되었다. 여성미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모든 개성적 이
미지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의식의 개념으로 대체되
기 시작하였고, 운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신체에 발
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인 아름
다움이라는 사고가 상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90년대 전반부의 패션은 경기 침체와 함께 복고
적, 미래적 경향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세
기말적 경향이 공존하였다. 80년대 과소비와는 반대
로, 현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는 리사이
클 패션과 에콜로지 테마가 확산되었고, 자연주의와
복고주의는 점차로 로맨틱스타일로 이어져 19세기
유럽의 의상을 현대패션에 접목시킨 히스토리즘의
발전을 가져왔다²⁷⁾. 계속되는 분쟁과 테러, 전 세계
적인 경제적 위기, 과학이 낳은 개인주의, 환경의 오
염 등, 세기말적 불안감이 어느 세기보다 강하게 나
타나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었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함께 퇴폐미가 강하게 나타났
다²⁸⁾.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씨
스루 룩, 란제리 룩 등으로 인체를 노출하거나 에로
틱한 패션을 추구하였고, 전통과 권위에 대한 도전
은 특별한 양식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어울리는 것
을 공존, 대치 또는 해체시켜 표현함으로써 스타일
은 다원적인 절충주의적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의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령대별 이상적인 여성미와 미의식 성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이상적인 여성미의 연령대별 차이와 시대적인 차이의 배경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여성의 시각과 남성의 시각으로 본 이상적인 여성미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어휘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매체로 여성 월간 잡지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성 잡지들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여원』, 『주부생활』, 『여성동아』 등의 잡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잡지는 여성들의 교양을 기르기 위한 계몽지로서 그 전문성, 권위 그리고 기사의 신뢰성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음은 물론, 젊은 연령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의 발행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잡지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연구의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이며, 10년 단위의 통시적 연구를 채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어휘의 수집은 20년 동안의 발행 호에 게재된 기사들을 토대로 실행하였다. 기사 선정 기준은 대중에 의해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된 성공한 여성과 존경받는 여성들의 성공 사례의 내용이라고 인지되는 기사들을 선정하였는데,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호기심이나 흥미 위주의 연예인의 기사는 배제하였고, 특정 직업이나 활동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어휘의 선별 기준을 이해하는 언어학전공 박사 1인과 국문학 전공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여, 선정된 잡지 기사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미’를 표현한 어휘는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첫째, 속성 위주의 표현으로는 87년, 『여원』에 게재된 손 명순 여사의 기사에서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친근한 느낌이 든다.” 의 예를 볼 수 있는데, ‘우아한’, ‘수줍은’, ‘친근한’ 등의 형용사형은 손 여사를 수식하는 어휘로서 서술어 형식이다. 둘째, 묘사 위주의 표현으로는 96

년, 『주부생활』에 게재된 시티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이 해란 양의 기사에서 “유창한 영어의 구사와 쾌활한 천성, 불임성 좋은 밝은 성격에 노력하는 자세… 능력도 탁월한 완벽한 커리어우먼이다.” 의 예를 보면 ‘쾌활한’, ‘불임성있는’, ‘밝은’, ‘노력하는’, ‘능력있는’, ‘완벽한’ 등의 형용사형은 이양의 성격과 능력을 묘사하는 수식어구 형태이다. 이와 같이 형태적 구성, 통어적 구성 등 다양한 형용사형으로 수집된 어휘의 전체 개체 수는 3,625개이었으나, 중복 사용된 어휘를 제외하고 남은 표본 어휘 1,687개만을 연구대상 어휘로 삼았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사의 주체인 여성은 여원, 123명(80년대 72, 90년대 51), 여성동아, 127명(80년대 64, 90년대 63) 그리고 주부생활, 195명(80년대 97, 90년대 98)등 총 445명이고, 선정 기사도 445편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주목을 받는 여성은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20대부터 40대의 연령층이었으므로, 전체적으로 그 연령대 여성들을 위주로 기사화 되었고 어휘개체 수도 많고 다양하였다. 50대, 60대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연령이지만, 그 연령대 자체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일종의 정체적인 면모를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어휘개체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 연도별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 연령 분포

연령대 연대	n(%)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980년대	57(24)	50(22)	59(26)	38(16)	27(12)	231
1990년대	35(16)	60(28)	47(22)	42(20)	30(14)	214
총계	92(20)	110(25)	106(24)	80(18)	57(13)	445

1980년대 초까지는 여성 교양 계몽지의 역할을 하였던 여성잡지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사회에 부각됨에 따라 잡지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예능계 종사자들의 기사가 대거 등장하였고 여성잡지들은 종합 연예 문화지의

IV. 결과 및 논의

1. 출현 어휘의 빈도분석

수집된 어휘의 80년, 90년대별과 각 연령대별 빈도 분석은 <표 4>, <표 5>와 같으며, 분석 과정에서 구나 절 형태의 어휘들의 띄어쓰기는 생략하였다.

80년대의 전체 어휘 중에서 표본 어휘는 총 847개이며, 이상적인 여성미를 표현한 어휘의 빈도순위는 <표 4>와 같다. 전체 연령 대에서 이상적인 여성미로 표현된 어휘로는 아름다운, 당당한, 섬세한, 겸손한, 세련된, 고운, 부드러운, 열정적인, 성실한, 멋진 등의 어휘들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빈도 순위가 높게 나타난 아름다운, 지적인, 단정한, 당당한, 정직한 등은 어휘의 특성으로 볼 때, 여성 고등교육의 증대와 전통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했던 80년대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써, 젊은 여성들은 지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

면서 개성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것에서 이상적인 여성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0대, 50대, 60대의 연령에서 빈도 순위가 높은 어휘는 매력적인, 봉사하는, 여유있는, 건강한, 희생적인 등이다. 50대, 60대의 여성들은 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으며, 6·25 전쟁과 유신 체제 등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터득한 경험에 의한 연륜과 지혜로써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여유 있는 건강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90년대의 전체 어휘 중에서 표본 어휘는 총840개이며, 전체 연령에서 표현된 이상적인 여성미의 어휘로는 노력하는, 따뜻한, 조용한, 개성적인, 고운, 열정적인, 능력있는 등이 있다. 20대 젊은 연령층에서는 인기있는, 노력하는, 세련된 등이 빈도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30대 연령층에서는 고집스러운, 노력하는, 개성적인 등이 높았다. 이들 젊은 여성들은 세련된 개성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프로정신 속에서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표 4> 1980년대 어휘의 연령별 빈도분석

(n)

연령 순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	아름다운(25)	아름다운(16)	단정한(5)	매력적인(10)	봉사하는(11)	건강한(7)
2	당당한(22)	지적인(14)	정직한	섬세한(9)	여유있는(6)	희생적인(6)
3	섬세한(19)	당당한(9)	지적인(4)	건강한	고운(5)	행동적인(4)
4	건강한(17)	고운(8)	개성적인	노력하는(8)	넉넉한(4)	겸손한(3)
5	매력적인	개성적인(7)	세련된	당당한(7)	섬세한	노력하는
6	겸손한(16)	겸손한	적극적인	도전적인	희생적인	통큰
7	노력하는	부드러운	싱싱한	조용한	가정적인(3)	평범한
8	세련된(15)	수줍은(6)	활달한(3)	열정적인(6)	감격해하는	현모양처의
9	고운	매력적인(5)	아름다운	욕심있는	당당한	인내심있는
10	부드러운	세련된	자신감있는	의욕적인(5)	깨끗한	감사하는(2)
11	개성적인(14)	조용한	당당한	성실한	멋진	강인한
12	열정적인	차분한	상냥한	부지런한	단정한	강직한
13	지적인	열정적인	성숙한	여성적인	사랑스런	고상한
14	조용한	몸매좋은(4)	강한	따뜻한	솔직한	세련된
15	봉사하는(12)	귀여운	겸손한(2)	겸손한(4)	현명한	순정적인
16	성실한	깨끗한	가녀린	세련된	훌륭한	여린
17	멋진	여성적인	노력하는	정열적인	강직한(2)	의젓한
18	정열적인	성실한	도전적인	멋진	겸손한	정열적인
19	여성적인(11)	싱싱한	매력적인	예쁜	단아한	편안한
20	의욕적인	활발한	멋진	특별한	부드러운	활발한
	∴	∴	∴	∴	∴	∴
계	847	225	163	188	152	119

위치가 확고하여진 90년도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다. 40대 이후 중년의 연령층에서는 매력적인, 봉사하는, 여유있는, 희생적인 등의 어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80년대와 같은 결과로써 이들은 연륜과 경험에서 표출되는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가족과 사회에 봉사하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성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표집 어휘의 개체 수 또한 적었고 여유있는, 헌신적인, 건강한 등의 어휘가 빈도의 수위를 차지하므로 건강하면서 삶의 여유와 넉넉함 속에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67), 건강한(46), 세련된(43), 능력있는(41), 날씬한(3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이상적인 여성미는 10대의 경우는 당당한, 자신감있는, 능력있는, 세련된 등 독특한 개성을 당당하게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당당한 개성미”이며, 20대는 사회 진출을 향한 자신감과 도전하는 모습으로 “자신감있는 개성미”로 나왔다. 30대에는 성숙되고 지적인 아름다움인 “세련미”이었고, 40대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열성미”이었다. 50대에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므로 “여유미”로 나타났고, 60대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건강하고 추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건

<표 5> 1990년대 어휘의 연령별 빈도분석

(n)

연령 순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	당당한(24)	인기있는(8)	고집스러운(12)	봉사하는(10)	아름다운(8)	헌신적인(6)
2	노력하는(23)	노력하는(6)	노력하는(10)	재주있는(6)	여유있는(6)	건강한(5)
3	고집스러운(22)	당당한	개성적인(9)	당당한	당당한(5)	고집스러운
4	아름다운(21)	세련된(5)	당당한(8)	평범한(6)	프로의	조용한(4)
5	평범한(18)	자연스러운	솔직한	부드러운	완벽한	고운
6	따뜻한(14)	프로의	평범한	성실한	노력하는(4)	단아한
7	프로다운	재능있는	거침없는	건강한(4)	훌륭한	따뜻한
8	봉사하는(13)	아름다운	자신감있는(7)	열정적인	강한(3)	아름다운(3)
9	성실한	독특한(4)	독특한(5)	열심히하는	고운	예쁜
10	솔직한(12)	자신감있는	젊은	강한(3)	고집스러운	정열적인
11	열심히하는	적극적인	멋진	뚝는	극복하는	편안한
12	재주있는	힘있는(3)	욕심있는	따뜻한	능력있는	감성적인(2)
13	편안한	가창력있는	꼼꼼한	진지한	대범한	겸손한
14	강한(11)	커리어우먼의	편안한	통통튀는	독한	깔끔한
15	개성적인	쾌활한	강한(4)	자그마한	따뜻한	내성적인
16	고운	감각적인	아름다운	솔직한	성실한	내조하는
17	열성적인	꾸준한	능력있는	매력적인	자유로운	변함없는
18	자유로운	건강한	소박한	감각적인(2)	자상한	부지런한
19	능력있는(10)	옛날킴	완벽한	당찬	화려한	빛나는
20	부드러운	조용한	적극적인	노력하는	활발한	온화한
	∴	∴	∴	∴	∴	∴
계	840	180	203	158	175	124

2002년 6월에 이루어졌던 선행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여성미’에 대한 자유 언어 연상에 의해 어휘를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이때 도출된 어휘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각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에서 당당한(91), 자신감있는(84), 개성적인(73), 지적

강미”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있는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써 건강한 외적 아름다움과 자신감 있는 당당한 행동이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인

것으로 밝혀졌다.

80년대와 90년대의 상위 대표어휘들과 2002년 선행연구에서의 대표 어휘의 군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80년대의 여성들은 전통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지적이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이상적인 여성미로 추구하고였다. 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어 남성과 대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프로페셔널 한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당당한, 자신감있는 등과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어휘와 함께 개성적인, 세련된, 날씬한 등의 외면의 미를 묘사하는 어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대두되고있는 외모지상주의 경향으로, 개성적인 아름다움과 자신감 있는 당당한 행동이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논리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었다.

2. 이상적인 여성미의 성향분석

표본 어휘들의 인식 방향을 진단하기 위하여 판단 주체를 중심으로 세 가지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의

미하는 것으로 교양, 생각, 성격, 가치관 및 전문지식을 통하여 표출되는 미를 내부지향적인 미라 하는데, 당당한, 자신감있는, 봉사하는, 여유있는, 능력있는 등의 어휘가 있다. 둘째, 신체적인 측면으로 가시적인 반응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미는 외부지향적인 미인데, 여기에는 건강한, 단정한, 발랄한, 세련된, 편안한, 화려한 등이 속한다. 그리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양면지향적인 미라고 하였는데, 매력적인, 개성적인, 지적인, 아름다운, 여성적인, 멋있는, 순수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표본 어휘들의 인식에 따른 성향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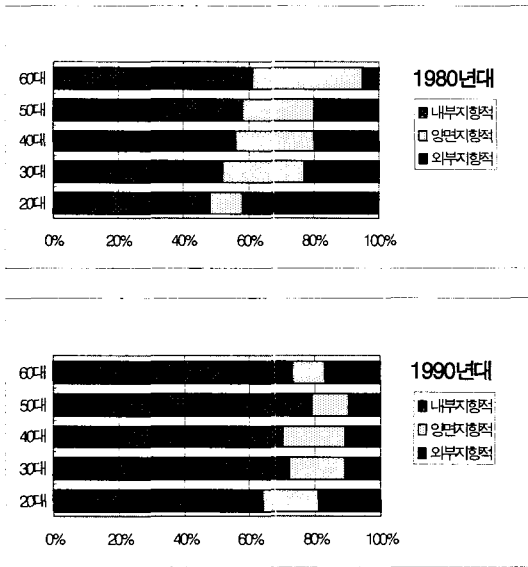
80년대와 90년대 전체 어휘의 성향분석 결과는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당당한, 성실한, 자신감있는 등,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휘와 발랄한, 싱그러운, 깨끗한, 단정한 등의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휘들이 함께 나타났고, 40대, 50대에는 노력하는, 봉사하는, 섬세한, 넉넉한 등과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대로 접어들면서 헌신적인, 여유있는, 믿음직한, 인자한 등 내면의 아름다움도 추구하지만, 건강한, 편안한, 멋있

<표 6> 전체 어휘의 성향분석

연령 성향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내 부 지향적	당당한	자신감있는	노력하는	봉사하는	여유있는
	노력하는	고집스러운	당당한	노력하는	헌신적인
	성실한	당당한	섬세한	자상한	넉그러운
	차분한	결손한	열정적인	정직한	인자한
	유연한	정직한	희생적인	넉넉한	믿음직한
∴	∴	∴	∴	∴	
외 부 지향적	발랄한	싱그러운	매력적인	편안한	건강한
	작은	우아한	예쁜	건강한	편안한
	날씬한	부드러운	얌전한	화려한	단아한
	깨끗한	단정한	우아한	활동적인	매력적인
	귀여운	자연스러운	편안한	세련된	평범한
∴	∴	∴	∴	∴	
양 면 지향적	지적인	세련된	깔끔한	지적인	아름다운
	개성적인	개성적인	조신한	보수적인	멋있는
	순수한	이지적인	여성스러운	고운	개성적인
	예의바른	아름다운	멋있는	멋있는	고전적인
	∴	∴	∴	∴	∴

는, 평범한 등의 외부지향과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세 유형으로 분류한 표본 어휘들의 인식에 따른 성향을 연도별로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어휘의 성향분석 그래프

이상의 결과로써 80년대와 90년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추구 성향을 비교하여 보면 90년대의 여성들이 80년대 보다 내부지향적 미를 더욱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선행연구의 어휘 성향분석의 결과는 10대와 20대의 여성은 외부지향적 어휘가 50%, 53%로 높게 나타나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은 내부지향과 외부지향적 어휘가 40%정도로 동일하게 도출되었고, 40대 50대 여성은 내부지향적 어휘가 57%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년 여성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고, 60대 여성은 내부지향적 어휘가 40%, 외부지향적 어휘가 42%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노년층의 여성들은 건강하며 추하지 않은 외모를 유지하려는 소망에 의해서 내면의 미보다 외부지향적 미를 조금 더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판단 주체에 따른 이상적인 여성미

선정 기사 작성의 주체가 여성 필진과 남성 필진 그리고 중립 필진인 기사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남성 시각으로 묘사된 이상적인 여성미, 여성 시각으로 표현된 이상적인 여성미, 중립적 시각으로 바라본 이상적인 여성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시각과 기자인 중립적 시각으로 바라본 이상적인 여성미에는 어휘에 있어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남성의 시각으로 표현된 이상적인 여성미는 80년대와 90년대에서 현저한 차이점을 보였다. 80년대에는 순진한, 유순한, 소박한 등의 어휘들이 시사하는 것과 같이 다소곳하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였으나, 90년대에 와서는 능력있는, 현명한, 멋있는 등의 어휘와 같이 프로다운 완벽을 겸비한 능력있는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써, 능력과 개성을 겸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새로운 인식 속에 과거 남성들만의 직종이었던 전문직에 도전하여 남자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 프로페셔널한 여성이 새로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판단 주체에 따라 표현된 어휘의 분류는 <표 7>과 같다.

4. 연령에 따른 이상적인 여성미

1) 20대의 이상적인 여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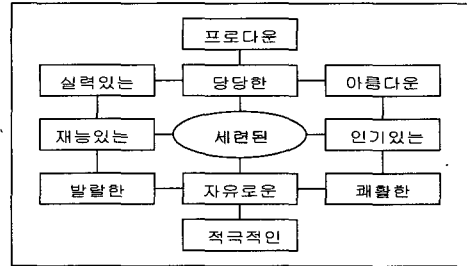
수집된 표본 어휘의 수는 80년대 225개, 90년대 180개이다. 빈도 순위와 어휘간 상호유사성에 기초하여 1, 2차 의미관계 분석을 하여 상위어를 추출하였다. 80년대의 어휘들은 겸손한, 성실한, 유연한 등의 내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조용한'이, 지적인, 개성적인, 아름다운 등과 같은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지적인'이, 세련된 매력적인, 깨끗한 등의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세련된'이 대표 어휘인 2차 상위어로 추출되었다. 당당한 지성미와 함께 차분하고 유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표 7> 판단 주제별 어휘

성향	주제	80년대			90년대		
		여성	남성	중립	여성	남성	중립
내부지향적		조용한	순진한	노력하는	봉사하는	능력있는	강인한
		현명한	총명한	당당한	겸손한	완벽한	노력하는
		섬세한	유순한	유능한	자상한	현명한	정직한
		완벽한	겸손한	현신적인	이성적인	프로다운	도전적인
		활발한	정직한	차분한	넉넉한	훌륭한	사려깊은
	:	:	:	:	:	:	
외부지향적		발랄한	수순한	매력적인	꾸밈없는	건강한	편안한
		청결한	우아한	가냘픈	건강한	편안한	날씬한
		날씬한	부드러운	단아한	화려한	단아한	단정한
		깨끗한	어여쁜	건강한	활기있는	매력적인	매력적인
		귀여운	소박한	편안한	세련된	평범한	생기있는
	:	:	:	:	:	:	
양면지향적		멋있는	고상한	깔끔한	지적인	여성스러운	감각적인
		성실한	품위있는	지적인	개성적인	멋있는	강렬한
		건강한	이지적인	세련된	너그러운	성숙한	여유있는
		예의바른	아름다운	멋있는	멋있는	품위있는	자유로운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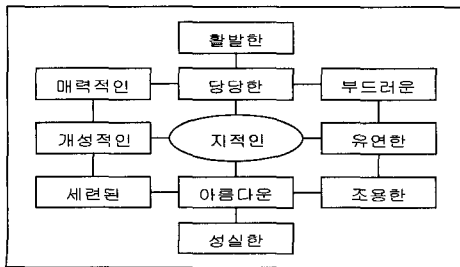
것으로 이상적인 여성미는 “지성미”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춘 건강한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인식에 맞추어 인기 있는, 적극적인, 실력있는 등과 같은 내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인기있는’이, 세련된, 발랄한, 신선한 등과 같은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세련된’이, 아름다운, 순수한, 독특한 같은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아름다운’이 2차 상위어로 추출되었다. 여성의 지휘가 향상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어휘들은 세련된, 아름다운, 인기있는 등이 선정되었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미는 재능과 프로정신을 가지고 커리어우먼을 당당하게 지향하는 것으로써 “세련미”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그림 2> 20대 여성미의 대표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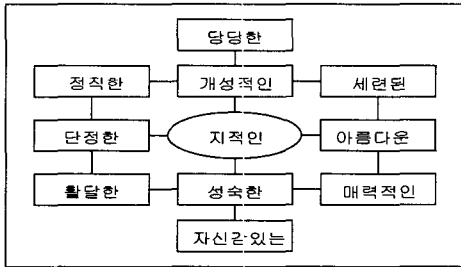


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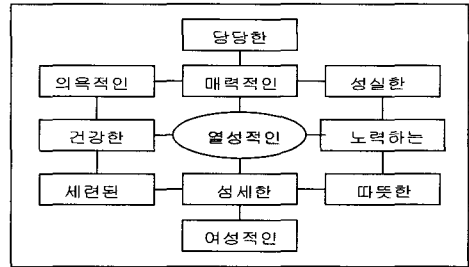
2) 30대의 이상적인 여성미

수집된 표본 어휘는 80년대 163개, 90년대에 203개이었다. 80년대의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구성원으로써 지적인, 성숙한, 세련된, 개성적인 등의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지적인’이, 정직한, 활발한, 자신감있는 등의 내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정직한’이, 단정한, 당당한, 깨끗한 등의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단정한’이 어휘간 상호유사성에 기초하여 2차상위어인 대표어휘로 추출되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감있게 표현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써,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는 “성숙한 지성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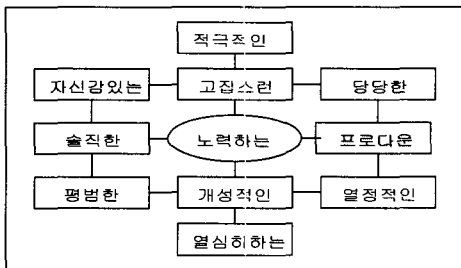
90년대의 어휘를 살펴보면 개성적인, 독특한, 멋 있는 등의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개성적인'이, 노력하는, 고집스러운, 자신감있는 등의 내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노력하는'이, 평범한, 우아한, 단정한 등의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평범한'이 2차 상위어인 대표어휘로 추출되었다. 이는 사회에서 남성들과 대등하게 활동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프로정신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90년대 30대 여성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것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고집스러운 개성미"라 할 수 있다.



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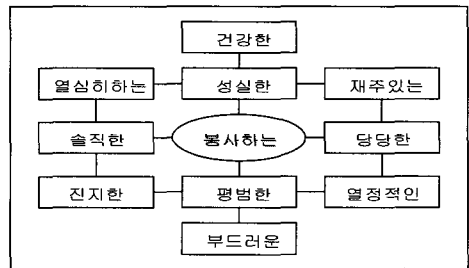


80년대



90년대

<그림 3> 30대 여성미의 대표어휘



90년대

<그림 4> 40대 여성미의 대표어휘

3) 40대의 이상적인 여성미

수집된 표본 어휘는 80년대 188개, 90년대는 158개이며, 80년대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세대로써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식 어휘는 내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는 노력하는, 섬세한, 성실한, 조용한 등이,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은 열성적인, 매력적인, 세련된 등,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은 매력적인, 건강한, 평범한 등인데

'노력하는', '열성적인', '매력적인' 등이 어휘간 상호 유사성에 기초하여 각각 2차 상위어인 대표어휘로 선정되었다. 이는 섬세하고 따뜻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속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여성미는 "열성미"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의 여성들의 이상적인 미의식 어휘는 수수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평범함과 같은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도 있지만, 대다수가 내부지향적 성향인 봉사하는, 성실한, 열정적인 등의 어휘로 '봉사하는', '성실한', '평범한'이 대표어휘로 선정되었다. 이상적인 여성미는 가정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성실한 봉사미"라 할 수 있다.

4) 50대의 이상적인 여성미

수집된 표본 어휘의 수는 80년대 152개, 90년대 175개이며, 어휘 간 상호유사성에 기초하여 1, 2차 상위어를 선정하고 대표어휘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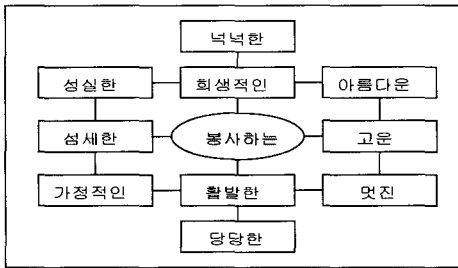
80년대 여성은 봉사하는, 여유있는, 희생적인 등의 내부지향적 어휘 군에서는 '봉사하는'이, 고운, 부드러운 아름다운 등과 같은 양면지향적 어휘 군에서는 '고운'이, 멋진, 단정한, 깨끗한 등의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에서는 ‘멋진’이 2차 상위어인 대표어휘 추출되었다. 생활의 지혜와 넉넉함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활발하게 봉사하는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는 “봉사하는 여유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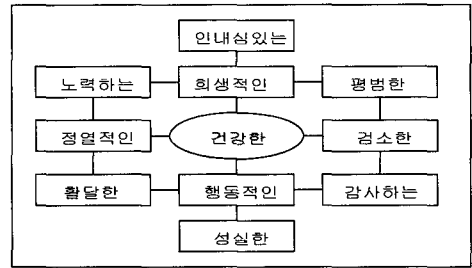
90년대 50대 여성들의 이상적인 미의식 어휘는 수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평범함과 아름다운 같은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휘도 있지만, 대다수가 내부지향적 성향인 여유있는, 성실한, 따뜻한 등의 어휘들로 ‘여유있는’, ‘편안한’ 등이 대표 상위어휘로 선정되었다.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전쟁과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온 세대로서, 내부에서 우리나라 오는 따뜻한 관용의 마음과 넉넉한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여유미”라고 판단된다.

회들, 건강한, 세련된, 편안한 등의 외부지향적 성향의 어휘 군으로써 대표 상위어로는 ‘건강한’, ‘희생적인’, ‘검소한’ 등이 추출되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강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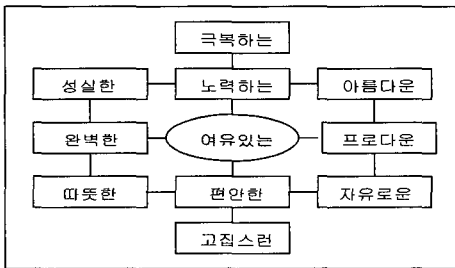
90년대의 미의식 어휘는 대다수의 어휘들이 생활의 안정과 여가에서 오는 편안한, 헌신적인, 조용한 등과 같은 내부지향적 어휘 군과 건강한, 아름다운, 고운 등의 양면지향성 어휘 군으로 대표 상위어휘로는 ‘헌신적인’, ‘건강한’, ‘아름다운’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 어휘들을 통해 볼 때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는 “건강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쇠약해지는 신체에 대하여 건강하면서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기고자 하는 소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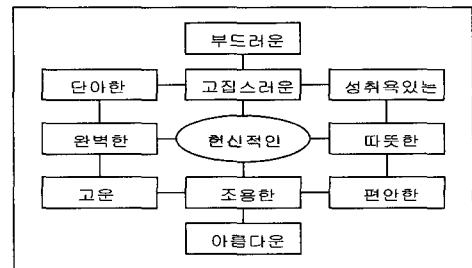


80년대



90년대

<그림 5> 50대 여성미의 대표어휘



90년대

<그림 6> 60대 여성미의 대표어휘

5) 60대의 이상적인 여성미

수집된 이상적인 여성미 어휘의 수는 80년대 119개, 90년대 124개이었다.

80년대의 여성미 어휘들은 내부지향성 성향이 강한 희생적인, 인내심있는, 활발한 등의 어휘들과 검소한, 고운, 평범한 등과 같은 양면지향적 성향의 어

2002년 6월의 선행연구에서의 연령대별 이상적인 여성미는 10대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당당한, 자신감 있는, 능력있는, 세련된 등 자신감 있는 외모와 독특한 개성을 당당하게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당당한 개성미”이며, 20대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사회 진출을 향한 자신감과 도

전하는 모습으로 “자신감있는 개성미”로 나왔다. 30대에는 주로 전문직업인이나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숙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련미”로 나타났고, 40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여성으로써 가족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로 “열성미”이었다. 50대는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온 세대로서 봉사하는 삶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여유미”로 나타났고, 60대에는 건강하면서 추하지 않은 삶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건강미”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비교하여 보면, ‘미’를 표현하는 언어들은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표현에 있어서 유사한 형용사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여성들 자신이 몸 담아온 문화 환경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회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차이점이 시사하는 것은 현대 사회는 80년, 9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 상승,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써 건강한 외적인 아름다움과 자신감 있는 당당한 행동이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지위가 이전 시기에 비해 향상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고, 이러한 환경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여온 이상적인 여성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시대적 배경을 1980년대와 1990년대로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여성잡지인 『여원』, 『주부생활』, 『여성동아』를 조사대상 매체로 하여,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여성을 판단 주체의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잡지에 기사화 된 내용 중에서, 성공한 여성과 존경받는 여성에 관한 기사를 채택하여 그 기사에서 ‘여

성의 이상적인 美’를 표현한 어휘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되어 표본화된 자료들을 빈도 순위와 어휘간 상호유사성에 기초하여 1, 2차 의미관계 분석을 통하여 대표 상위어휘를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상적인 여성미의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별 비교와 80년대, 90년대의 시대적 비교, 미의식에 따른 성향분석 그리고 여성미 판단 주체의 시각에 의한 차이점 등의 연구문제으로써 규명해 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시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 80년대에는 여성들의 고등교육이 확산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차별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이상적인 미는 “지성미”로 밝혀졌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운동으로 단련된 균형 잡힌 건강미와 함께, 당당하고 능력있는 커리어우먼을 지향하는 “세련미”를 이상적인 여성미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30대의 이상적인 여성미는 80년대에는 교육의 증대로 인하여 지성미와 함께 성숙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구하는 미는 “성숙한 지성미”라 할 수 있고, 90년대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내적인 건실함과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고집스러운 “개성미”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련되고 개성있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0대 여성들은 80년대에는 열정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구하는 미는 “열성미”이고, 90년대에 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구하는 미는 역시 “성실한 봉사미”라고 하겠다. 80년대와 90년대 40대 여성들은 모두 가정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80년대와 90년대의 50대 여성들은 봉사하는, 편안한, 여유있는 등이 대표어휘가 시사하는 것 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봉사하는 여유미”와 “여유미”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지혜와 연륜으로 비롯된 관용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한 멋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60대 여성들은 80년대와 90년대 모두 건강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므로, 60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는 “건강미”라고 하겠다. 이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쇠약해지는 신체를 건강하고 품위 있게 유지하면서 노후를 즐기고자 하는 갈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상적인 여성미의 인지 성향을 비교하여 보면 90년대의 여성들이 80년대 여성들보다 내면의 미를 더욱 추구하였고,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연령이 증가하여 가면서 내면의 미를 중요시하여 여성미의 내부지향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일곱째, 이상적인 여성미에 관한 기사 작성자인 판단 주체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여성의 시각이나 중립적인 기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성미에는 어휘에 있어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남성의 시각으로 표현된 이상적인 여성미는 시대적인 현저한 차이점을 보였다. 80년대에는 다소곳하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을 아름답다고 하였으나, 90년대에 와서는 멋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을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다. 즉, 80년대의 여성들은 섬세하고 유순하며 지적인 아름다움을 이상적인 여성미로 생각하였고, 90년대의 여성은 사회에서 커리어우먼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활동하는 전문적인 모습에서 이상적인 여성미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이상적인 여성미는 사회적 환경에 따른 문화의 유입 정도에 관계되므로 시대에 따라, 그리고 연령 대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혔던, 여성미를 판단하는 요인인 신체 이미지는 주관적인 것으로 왜곡되기 쉽고 성별, 연령, 지역과 관련이 된다고 한 Kaiser³⁴⁾의 학설이 증명되었고, 조선행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대상 여성의 연령 분포, 직업에 의한 활동성이나 지적인 정도는 평균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조사대상 잡지가 여원, 여성동아,

주부생활 등 세 가지로 한정되었던 점과 선정 기사의 주체가 여성 필진과 남성 필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기사가 중립 필진인 기자에 의해 쓰여진 점은, 여성의 미의식에 관한 어휘 표현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하겠고 그들 나름대로 미에 관한 표현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 표현들이 다소 주관적이라 하겠지만, 문법적 적격성과 오랜 기간동안 독자들에게 의해 검증되어온 신뢰성은 인정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로 밝혀진 이상적인 여성미 관련 어휘들은 그 유사성과 공유하는 속성에 의해 범주화한 결과를 의미미분척도로 측정하여서 다른 사회·문화적 변수와 함께 심층 분석을 병행하여 후속 연구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강대석 (1987). 여성미에 대한 미학적 고찰. 여성문제연구, 15, 대구효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55.
- 2) Freedman, R. (1986). *Beauty bound*. London: Columbia Books.
- 3) Baudrillard, J.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Paris: Gallimard, 이상를 옮김 (1991). *소비의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 4) Baudrillard, J.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pp. 189-194.
- 5) 이영자 (1997). 이상화된 몸, 아름다운 몸을 위한 사투: 몸의 정치학. *사회비평*, 17, p. 17.
- 6) 오생근 (1997).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 몸의 정치학. *사회비평*, 17, pp. 98-101.
- 7) 강대석. *앞의 책*, pp. 49-50.
- 8) 백기수 (1979).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76-78.
- 9) 김영자 (1998). *복식미학*. 서울: 교문사, p. 28.
- 10)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135.
- 11)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34.
- 12) 김소영 (200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

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5) 권기영, 조필교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pp. 681-706.
- 16)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 pp. 163-180.
- 17) 김은희 (2001).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494-504.
- 18)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pp. 1227-1238.
- 19) 류숙희, 류지은 (2001). 컷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이상적 여성상과 의복스타일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5(4), pp. 817-827.
- 20) 정인희, 이은영 (1996). 의복과 자기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0(1), pp. 207-217.
- 21) 김주현 (1999). 여성의 심미적 경험과 페미니즘 미학의 가능성. 한국여성학, 15(1).
- 22) 심영희 (1998). 한국에서의 여성과 몸의 정치학: Foucault의 담론 권력이론에 기반하여. 한국학논집, 33, pp. 199-241.
- 23) 이영자 (1996). 소비사회와 여성문화. 한국여성학, 12(2), pp. 43-77.
- 24) 장필화 (1992). 몸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한국여성학, 8, pp. 9-27.
- 25) 이관이, 이경희 (2002). 어휘분석을 통한 이상적인 여성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 pp. 358-368.
- 26) 박신희 (1999).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6.
- 27) 정삼호 (1995).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p. 199.
- 28) 임은혁 (2002).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 29) 남영신 (1988). 우리말 분류사전. 서울: 한강문화사.
- 30) 박용수 (1989). 우리말 갈래사전. 서울: 한길사.
- 31) 박준화, 김병선 (1991). 한국어 형용사사전. 서울: 계명문화사.
- 32) 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서울: 두산출판사.
- 33) 한글학회 (1991).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34)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